

절대절망의 망대에서 절대언약의 망대를 발견한 전도자 예레미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애가 3:22-23, 고린도후서 4:16-18

정 윤 돈 목사님

* **애3:22-23**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 **고후4:16-18**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을 치유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라와 민족에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램넛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진다. 저는 램넛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램넛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살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과거에는 힘들어서 낙심했는데, 이제는 좋은 게 너무 많고 먹고 마시는 여러 유혹들이 많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간적인 유혹 뿐 아니라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다. 다섯 명의 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애굽과 이집트와 앗수르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다. 대한민국도 중국, 일본, 소련, 미국이 괴롭히는 고통의 역사가 있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느니라’ 축복을 주셨다. 사실 노력으로 치면 북한의 새벽별보기운동이 더 노력이 크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노력도 다 소용이 없다. 정신문제가 생기면 돈과 집도 아무 소용없다. 악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가 아무 소용없다.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여러분이 믿음과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언약을 붙잡기 바란다.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계속 어려움이 온다. 악한 사람들도 많다.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여러 이유로 싸움을 건다. 악한 사람일수록 영안을 열어 여러분의 약점을 본다. 우리는 살리기 위해 덮어주지만 악한 사람들은 덮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돕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악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잠언 기자도 하나님께 왜 악한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냐고 질문한다. 여러분은 절대 그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돼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살리기보다는 죽이려 한다. 날마다 성령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상처 줄지 연구한다. 게다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때리신다. 예레미야는 3장 22절에서 23절에서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한다. 많은 고통이 있는데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절대 속지 않으면 된다. 예레미야애가는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눈물로 쓴 편지다. 포로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멸망한 상태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을 끝까지 베푸시겠구나’하는 믿음을 붙잡고 썼다. 지금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에 빠지는 것이다. 어제도 램넛의 땅끝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하셨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땅끝을 정복하시기 바란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여러분이 다 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억울해서 빠지고 갈등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 선교사를 후원할 만큼 축복달라고 기도하셔서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10년 동안 현장에 가야 한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해봐야 한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해야 전문인이 된다. 잠언에서도 급하게 얻은 재물은 절대 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급한데, 여러분은 진짜 해야 할 것을 하셔서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오늘에 성공해라. 어떠한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1. 예레미야애가에 담긴 핵심 주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주로 심판과 슬픔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복음과 그리스도,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살펴보겠다.

(1) 첫째는 죄와 심판에 대한 인식이다. 예레미야애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복음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불신앙하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향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다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다. 예레미야애가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인간은 남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절망하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울하다. 우리에게는 미움과 갈등, 불신앙이 무궁하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좌절과 무능이 무궁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함께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신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레미야는 다 좌절스럽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에 아침마다 새로웠을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서밋타임을 갖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해져야 한다.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와 선교여야 한다. 이 자비와 용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메시지이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시며, 이 용서가 복음전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 세 번째의 주제는 ‘회개와 구원의 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 인생을 회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싸운다. 예수님께서서는 수치를 당하시면서 뺨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자존심을 세울 수 없다. 우리는 자꾸 잘못을 따지는데, 십자가가 주어진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한다.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다. 목사님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다 죽이려고 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만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잘못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

(4) 네 번째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이다. 예레미야의 고통과 슬픔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레미야의 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예견하는 그림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평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흠구덩이에 빠지고 예레미야의 책들이 불태움을 당하고 포로생활도 했다. 이게 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이다. 비록 예레미야애가에서 주로 슬픔과 절망을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다. 이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다. 이게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2. 예레미야애가에서 담겨진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였다.

(1)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는 “여호와와 인자와 공훈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 멸망당해서 망하고 지옥에 가야 할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게다가 그 많은 고난 중에서 복음에 정말 결론낸 여기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 줄 모른다. 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는지 모른다. 그러면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생명운동을 할 수 없다. 정확하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세상의 빛으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다.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지 않고 복음이 주인 되지 않으면 복음이 체질되지 않는다. 머리로 아는 데 복음이 마음으로 내려오지를 않는다. 여러분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더 깊이 깨닫기 바란다. 여러분이 선교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직접 강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셔라. 그 정도로 응답받고 전도하고 살리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여러분 밖에 없다.

(2)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시는데 이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잘되고 복 받고 다 정복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꾸지람하는 건 본심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복 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예레미야는 원망, 불평만 하지 않고 그걸 깊이 묵상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 세상의 것만 좋아하는 우리를 돌아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시기 바란다.

(3) 다음으로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 말씀에 “너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것을 보고 너희에게 이와 같은 근심이 있는가 물어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이같이 괴롭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모습은 고통을 당하는 예레미야,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생활하실 때 손가락질 당하고 제자들까지도 부인하고 도망갔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비난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4) 다음은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때 예배와 교회와 믿음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전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5)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고 답답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여호와와 인자와 공훈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한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재난이 많고 낙심되는 마음이다. 예레미야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있을까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오히려 여호와와 공훈과 인자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 소망이 있음이다. 예레미야에게는 우리와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어떤계약이 있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계약이 있어야 한다. 저는 고아원과 장애인 일을 하면서 불편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다. 시험 전날이어서 주일이면 공부를 안 했다. 성경만 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미래를 다 보게 하셨다. 문제는 계속 있지만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셨다. 이게 어떤계약이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개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자격증 공부를 조금씩 하면 나중에 그게 유일성이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은 인자와 공훈이 무궁하셔서 절대 진멸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에게는 의인 열을 요구하셨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만 있어도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7.7기도문 중 7여정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여정 7가지는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이다.

“① 하나님,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②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 비혜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③ 사람들은 듣는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나와 현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오늘 어디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리랑카에서 제자와의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제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애가를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인자와 공훈이 무궁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침마다 새롭게 서밋타임을 갖고 기도하며 세계를 사실적으로 살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